

[제안서] 사고 트렌드 기반 비즈니스 제안

1. 사업 정의: “AI 기반 실시간 차량 결함 진단 및 긴급 제동 솔루션”

최근 급발진 주장 사고와 제동장치 결함 사고가 빈번해지면서,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는 것을 넘어 **기계**의 결함을 실시간으로 입증하고 사고를 강제 저지하는 기술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.

2. 시장의 Pain Point & 기회

- 문제점: 사고 후 국과수 감정까지 수개월이 걸리며, 그 사이 운전자 및 부상자는 심리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을 겪습니다.
- 제안지점: 사고 발생 전후 **10초**간의 브레이크 압력 데이터, 가속 페달 개도량, 엔진 로그를 블랙체인에 실시간 기록하여 조작 불가능한 증거를 생성하고, 결함 감지 시 AI가 강제로 엔진 출력을 차단하는 '애프터마켓용 세이프티 키트'입니다.

3. 핵심 전략 (The Big 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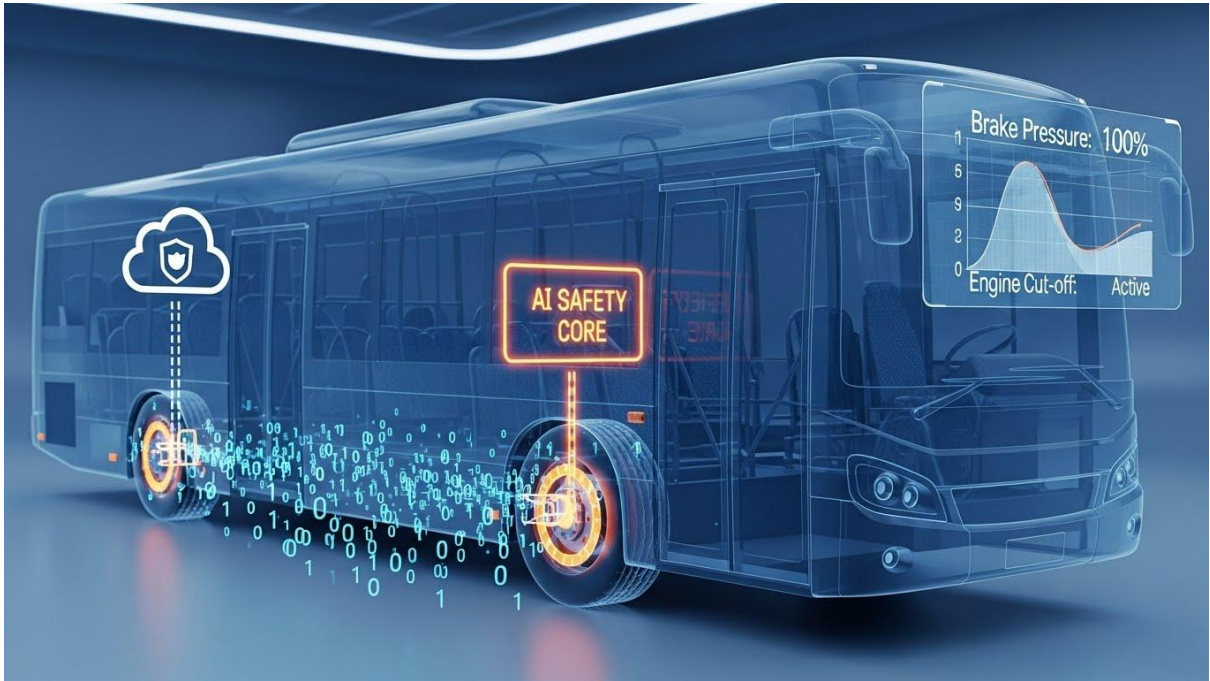
- 결함 즉시 입증 시스템: "브레이크를 밟았다"는 주장을 데이터로 즉시 증명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.
- 강제 비상 제동(AEB) 업그레이드: 구형 버스나 트럭에도 설치 가능한 고성능 레이더+AI 제동 모듈을 보급합니다.
- B2B 공공 운수 보안: 지자체 및 버스 운수 업체와 계약하여 '사고 제로 인증 버스' 타이틀을 부여하고 보험료 인하 모델을 구축합니다.

4. 수익 모델

- 하드웨어 판매: AI 블랙박스 및 센서 키트 판매 (대당 150만 원 선).
- 데이터 보안 구독: 증거 데이터의 클라우드 암호화 보관 및 월간 리포트 (월 3만 원).
-

5.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이유

- 도심 속 대형 사고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사회적 공포입니다. 정부는 곧 모든 대중교통에 더욱 엄격한 안전 데이터 기록 장치를 의무화할 것입니다. 규제가 시작되기 전, 표준 기술을 선점하는 자가 시장의 주인이 됩니다.



서대문역 시내버스 인도 돌진 사고 상세 보고 요약:

- 사고 개요: **2026년 1월 16일 오후 1시 15분경, 704번** 시내버스가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인도로 돌진하여 건물 외벽에 충돌한 사고.
- 피해 현황: 총 **13명 부상 (중상 2명, 경상 11명)**.
- 운전자 진술: 운전기사는 사고 지점 약 **700m** 전부터 *******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***고 주장하며, 음주/약물 검사 결과는 '음성'이었습니다.
- 향후 수사: 경찰은 운전자의 진술대로 ****차량 결함(제동장치 고장)****이 있었는지, 혹은 페달 오조작이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(국과수)에 차량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.